

패션에 표현된 사이보그 페미니즘 시각

김 순 자[†]

상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Cyborg Feminism Expressed in Fashion Design

Soon Ja Kim[†]

Dept. of Fashion Design, Sangmyung University

접수일(2010년 10월 27일), 수정일(2010년 11월 22일), 게재확정일(2010년 11월 23일)

Abstract

The recent innovations in technoscience have changed the patterns of everyday lives for women and their politics of identity. Among the various debates on a women's relationship to technoscience, Donna J. Haraway's theory of the cyborg has been one of the most influential, as it provides new modes of conceiving subjectivity as well as new notions of women's shared experiences. For Haraway, the cyborg is an image of a female subject that will lead the future of science and technology as an amalgamation of non-hierarchical differences.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for the distortion, anti-aesthetic body, and clothing in fashion design through the cyborg feminism theory.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the cyborg in fashion designs find their expression through mechanical images, distorted physical transformations, reconstruction of a destructed body, expression of an anatomical and heterogeneous body, and the persona image. Such expressions are not simply an act of distorting and destroying a body image but extending the category of a body, but of going beyond the limit of a real body and create a new body.

Key words: Cyborg, Feminism, Fashion design; 사이보그, 페미니즘, 패션디자인

I. 서 론

오늘날 테크놀로지가 급속도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의 기정사실이 되었다. 최첨단 테크놀로지는 인간의 삶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단순히 우리가 사용하는 '대상'의 수준을 넘어 우리의 생활과 몸 깊숙이 들어와 인간과 하나가 되고 있다. 또한 생명과학기술이 진전됨에 따라 생명의 탄생과 관련된 여성 고유의 영역도 획기적 변화를 겪고 있는 실정이며 정보과학의 기술혁신들은 여성

의 일상적 삶의 패턴도 바꿔놓고 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의 구체적 결과들이 페미니즘의 미래 방향에도 의미 있는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장정희, 2009).

사이보그 페미니즘은 과학기술과 정보화 시대의 페미니즘으로 여성은 과학과 기술의 사회관계를 통해서 밀접하게 재구조화되는 사회에 살고 있음을 강조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과학과 여성의 관계를 탐색하여 이를 재정립하는 작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사이보그 페미니즘은 기술과 남성성을 연관시키는 전통적인 관점을 거부하고 근본적으로 여성을 사이버공간의 능동적인 행위자로 설정하며 여성이 기술의 희생자라는 관점을 벗어나서 여성이 자신의 쾌락을 위해 기술문화적 공간에 거주할 수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둔다.

[†]Corresponding author

E-mail: sjkim@smu.ac.kr

본 연구는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사이보그 페미니즘의 형상화된 이미지로서의 사이보그는 미래의 여성 정체성을 모색하는 주요 개념으로 부상되면서 페미니즘 문화연구에서 주요한 이론적 근거로 접근되고 있으며, SF소설이나 영화, 게임, 광고 상품 등을 중심으로 대중문화영역에서도 사이보그는 주요한 아이콘이 되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에 의해 변화된 인간에 대한 고찰이나 사이보그를 중심으로 한 여성성의 재구성 및 재현에 관한 다양한 표현들을 접하게 된 것이다(Toffoletti, 2007). 이러한 표현들의 주요한 기호적 의미로서 해러웨이(Haraway, D. J.)의 사이보그론의 핵심 개념들이 제시되고 있다.

페미니즘은 서구 백인 남성 문화체제 안에서의 소외된 성으로 억압된 가치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해왔다. 이러한 페미니즘은 다양한 시각에서 사회적 차별과 억압에 대한 여성 문제인식과 해결방안, 그리고 그에 따른 여성 의식전환을 촉구하면서 남성의 성적 표현물로 상징화된 여성 신체와 의복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여성의 자아의식의 표현수단이 되는 패션과 연계를 맺어왔다(김현수, 양숙희, 2004).

포스트 휴먼 시대의 새로운 인간형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보그는 패션에서도 변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패션은 신체를 매개로 당대의 사회상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공간과 사물의 언어이자 신체 이미지를 표현해 온 시각문화이기 때문에 패션이미지 표현에서의 사이보그 특성은 사이버문화 속에서 변화된 여성의 역할과 정체성 표현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포스트 휴먼으로서의 사이보그가 패션에 미친 영향을 페미니즘 시각에서 분석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문화적 변화에 반응하며 생성 변화되는 패션을 시대적 가치체제와 관련하여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인식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사이보그의 개념과 특성을 관련 문헌을 통해 살펴보고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선언문』을 통해 사이보그 페미니즘의 발생배경과 핵심적인 개념을 고찰하며, 1990년대 이후 패션잡지와 패션 관련 문헌에 제시된 패션디자인에서 이러한 특성과 의미를 담고 있는 디자인을 선별하여 사이보그 페미니즘이 패션디자인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사이보그 선언문이 발표된 것은 1985년이나 발표될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고 고도의 테크놀로지

의 발전이 이루어진 1990년대 이후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패션을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II. 사이보그의 개념 및 특성

사이보그는 사이버네틱 유기체(cybernetic organism)에서 파생된 단어로 1960년 컴퓨터 기술자인 미국의 만프레드 클라인즈와 정신과 의사인 나단 클라인이 함께 쓴 논문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들은 우주여행을 할 때 우주복을 입지 않고 우주공간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인체를 개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기계와 유기체의 합성물을 사이보그라고 명명하였다(손창희, 2006).

사이보그는 또한 인간과 기계가 혼성된 유기체로서 인간이 하기 힘든 일을 하기 위해 기획된 로봇의 형태를 띤 노동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독일의 한나 아렌트에 의하면 사이보그는 '노동의 수고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소망이 구체화된 형태인데, SF영화에서 로봇과 사이보그의 개념이 발전하면서 사이보그는 노동의 수고뿐 만 아니라 인간이 지닌 육체적 연약함과 지능의 불완전함으로부터의 해방의 욕구를 담게 되었다(송희영, 2007).

사이보그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그 범위를 확대하면 1998년 세계 최초로 로봇 팔 이식수술을 받은 영국의 장애인이나, 베리칩(Verichip)을 피부 밑에 삽입한 사람은 물론이고 유전공학과 심장박동 제어장치 같은 의학기술로 심신의 기능을 개선한 사람들, 또한 인공장기를 갖거나 예방접종을 한 사람, 항정신성 약품을 복용하는 사람들도 기술적인 의미에서는 사이보그이다. 즉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사회라는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인간과 기계가 상호작용 하는 모든 형태의 인터페이스 역시 사이보그라 할 수 있다(Hayles, 1993). 학자에 따라서는 기계와 유기체의 테크노 융합체인 기계적 사이보그뿐만 아니라 다른 유기체와 인간의 잡종괴물인 유기체적 사이보그를 포함하기도 하며 인간이 컴퓨터 가상현실을 사용할 때 기계의 인공지능회로와 접속해 신경조직이 재편성된다하여 컴퓨터 사용자들도 포함한다.

이처럼 사이보그란 견해에 따라 개념적 범위가 차이가 있는데 현대 문화 속에서 사이보그, 로봇, 안드로이드, 인조인간 등이 사이보그라는 개념으로 혼용되어 쓰이기도 한다(김소영, 2006). 이들의 차이를 살

퍼보면 로봇은 유기체적인 속성이 없는 완전한 기계적 존재를 말하는 것으로서 금속이나 플라스틱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예로는 영화 <스타 워즈>에 나오는 R2D2와 C3PO가 있다. ‘인간과 닮은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 안드로이드는 인간과 같이 세포의 원형질로 되어 있어서 겉으로 볼 때 인간과 구별하기 어려운 인공적으로 배양된 가공의 생물을 말한다. 따라서 이는 복제인간이나 인조인간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심혜경, 2004).

그러나 사이보그는 확실히 이러한 존재들과는 구분된다. ‘유기체와 기계의 결합’인 사이보그는 기계와의 결합을 이룬 인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단순한 원형질이나 유기체보다는 인간과 기계가 결합한 새로운 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이보그의 예로는 영화 <로보캡>의 머피가 있고 <육백만 달러의 사나이>의 주인공 스티브 오스틴이 있다. 최근에는 문화적인 흐름이 가상의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사이보그 역시 가상적인 형태를 지니게 되었는데 영화 <매트릭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로 이러한 사이보그의 예이다. 김윤상(1999)은 이러한 최근의 문화적 경향을 고려하여 사이보그를 2가지로 개념화하였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의미인 인간/기계의 혼종이고 다른 하나는 가상현실 속에서 체험되는 가상신체(virtual body)를 말한다. 후자의 경우 사이보그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비물질적 이미지로 구성되며 사이버공간에 흘러다니는 존재로 나타난다.

최근에 등장하는 논의들에서는 사이보그 존재에 대한 개념적 범주가 더욱 넓어졌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비롯한 유기체적 기술의 발달을 볼 때 인간을 다양한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 시스템이자 네트워크로 본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사이보그라는 것이다. 또한 최근 들어 인간 고유의 정형성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기계적인 속성들이 이를 대체해 간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사이보그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이보그의 개념은 현대로 올수록 더욱 방대해지고 그 경계도 점차 확장되고 있다.

III. 사이보그 페미니즘의 이론적 배경

과학기술과 페미니즘의 관계 논의에서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론은 가장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론을 중심으로 사이보그 페미니즘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주요 개념을 고찰하고 이

러한 의미전달을 위해 제시된 사이보그의 특성과 의미에 대해 분석하였다.

1. 사이보그 페미니즘의 사회문화적 배경

사이보그 페미니즘은 1980년대 신보수주의로 회귀한 미국의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주의 페미니즘 진영의 자체 반성이었으며, 기술복제 시대와는 패러다임을 달리하는 전자복제 시대에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지형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제기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 성격을 띠고 있다.

논의의 촉발점이 되었던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선언문』은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재 개념화 하려는 시도로 출발하였다. 그녀의 사이보그 론은 기술에 대한 정의 자체가 남성적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여성과 관련된 기술은 하찮은 것으로 간주되어 여성이 기술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상투적 여성형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과학기술과 남성성을 연관시키는 것은 생물학적 성차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젠더의 역사적 문화적 구성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기술이 생산되고 사용되어온 방식은 주로 남성적 가치에 의해 형성되어 온 것으로서 여성은 이 영역에서 주변적 존재가 된다. 해러웨이는 지배논리를 형성해 온 뿌리 깊은 근대과학사를 비판하였는데 과학에 남성성이 부여되는 왜곡현상을 주지하고 소위 페미니즘 과학을 제시하면서 자연 혹은 세계를 이분법적인 세계가 아닌 차이를 인정하는 복수성의 세계로 이해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으로 사이보그 페미니즘이 시작하는 지점은 페미니즘이 하나로 거론하기 어려워졌다는 시대적 상황에 기인하고 있다(손창희, 2006). 기존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의 노동을 중심으로 계급문제를 제기하고 생산현장과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성차를 중심으로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를 문제 삼았다. 그러나 사회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제도도 변화되었고 한 가지 목소리로 페미니즘을 규정하기 힘들어진 상황이 되었다. 이처럼 변화된 상황을 수용하기 위해 해러웨이는 제임슨이 자본주의 발전을 상업적/초기 산업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 다국적 자본주의라는 3단계로 구분한 것을 토대로 가부장적 핵가족, 근대가족, 가내경제가족의 3단계 가족제도를 분류하였다. 가내경제가족은 어머니가 가족장이 되는 반어법적 가족구조이다. 빈곤화된 가내경제가족이 지배적인 양식으로 된 다국

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여성들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는 차이의 경제학에 기초해야 한다고 해러웨이는 주장한다(Haraway, 1994). 또한 그녀는 마르크스주의의 정신분석학이라는 거대담론의 그늘 아래 있는 기존의 페미니즘은 생각을 달리하는 페미니즘에게 동일한 입장을 취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계급, 인종, 성별에 따라 역사적 문화적으로 정체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 여성이라고 해서 동일한 범주에 묶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여성경험’이라는 원리에 기초한 페미니즘은 다성음적인 여성의 범주를 하나로 끌어안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자 백인 중산층 지식인 여성이 중심이 된 기존의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유색인종, 노동자 계급, 3세계 여성의 타자성을 무의식화 시켰다고 스스로 인정하게 된다.

해러웨이에 의하면 이런 차이의 시대를 대처할 페미니즘의 신화가 사이보그이다. 해러웨이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재편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의 정체성을 주장하였고 그 정체성의 중심에 사이보그가 있다고 보았다(Haraway, 1991).

2. 사이보그 페미니즘의 핵심 개념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탈 경계성에 의한 분열된 정체성과 이원론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이라고 볼 수 있다. ‘나는 여신보다 차라리 사이보그가 되겠다’(Haraway, 1994)고 하는 주장에서처럼 해러웨이에겐 사이보그는 정체성 재구성의 원천이자 서구 이원론을 극복하는 힘으로 제기되고 있다.

1) 분열된 정체성

전통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고정되어있고 견고하며 안정된 것이었다. 이러한 사회에서 정체성은 한 사람이 세계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규정하는 전반적인 방향과 종교적 제약을 제시하는 한편 사고와 행동의 영역을 엄격하게 제안하는 규정된 사회적 역할이자 전통적 사회체계로서 기능하였으며 개인은 정체성 위기를 겪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에 의한 사이버공간에서 인간의 정체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사이버공간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정체성을 갈아입을 수 있고 정체성이 그 역할을 자유자재로 수행

할 수 있으며 기존 관계의 위계서열을 교란시키고 다시 배열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전의 고정적이고 단순했던 정체성 개념은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배경 하에서 더욱 세분화되고 다원화되었다. 사이보그 페미니즘은 하나의 형용사로 명명하기 어려워진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단일한 정체성이 아니라 유동적 정체성 모델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해러웨이는 정보화 시대의 여성 삶에 대해 라첼 그로스만(Rachel Grossman)의 “통합회로 속의 여성” 개념을 도입하였다(장정희, 2009). 통합회로는 마이크로 칩으로서 여러 유형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함을 의미하는데 통합회로 속의 여성 역시 여러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고도의 과학기술로 인해 가능해진 사회관계에 기초하여 인종, 성, 계급의 일부분이 재배치 되었으므로 그것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체성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열된 정체성 개념에서는 사이보그는 젠더를 초월한 존재로서, 여성적 총체의 체험을 부정하며 정체성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이보그 정체성의 구성은 본질적 여성 개념을 넘어서서 유동적 정체성 개념을 수립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2) 위계적 이분법의 해체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페미니즘은 서구의 가부장제와 근대성의 기반이 되는 이분법을 해체함으로써 과학기술 시대 페미니즘 패러다임에 획기적 선을 그어 놓았다(장정희, 2009). 해러웨이는 사이보그를 성차별 사회를 극복하는 사회정치적 상징으로 제시하였다. 즉 사이보그는 정보/기술 시대에 대응하여 여성의 주체성이나 삶의 전략을 세우는데 하나의 주요한 근거로서 유기체와 기계 사이의 경계 해체, 이원론의 해체는 여성 정체성이 새로이 구축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르쳐 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사이보그는 지배적 네트워크 속에서 과학기술로 대표되는 지식의 주체로서는 동시에 자신이 탄생한 지배적, 통제적, 위계적 네트워크에 저항하고 이를 교란시키는 존재로 이분법 경계를 흐리는 존재이다.

페미니즘은 그 시작에서부터 가부장적 이분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지탱하게 하는 지식과 남성적인 권력의 공모에 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지시해왔다. 위계적 이항대립의 이분법적 사고에서는 하나는 우등하며 언제나 추구되어야 하는 불변의 가치인 반면 다른 하

나는 열등하고 우등한 존재를 위한 부수적인 존재로 폄하된다. 이분법적 사고의 문제점은 그것이 가치들을 위계적으로 배치하여 한 항을 다른 항에 대해서 특권화 시키는 것에 있다. 즉 다른 항을 부정하거나 다른 항의 이해를 종속시키는 관계를 사용함으로써 두 항의 대립적 관계를 제외하고는 다른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들에 대한 사고의 가능성을 차단해 버린다는 점이다. 이 위계적 이항대립의 이분법에는 우등한 하나와 열등한 다른 하나의 질서관계가 결코 전복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주체/객체, 정신/육체, 이성/감정, 남성/여성, 능동성/수동성, 문화/자연, 문명/미개, 백인/유색인종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해러웨이는 사이보그가 갖고 있는 탈 젠더적 가능성과 이를 통한 여성 해방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그녀는 미래의 사이보그는 특정한 누구를 선별적으로 소외하거나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탈성차 사회의 근간이 된다고 강조한다. 그녀의 논리를 종합해보면 기술이라는 매개와 사이보그라는 은유를 통해 여성들의 힘을 하나로 집결할 수 있는 강력한 구심점을 만들자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이를 통해 여성들은 기존의 페미니즘 진영이 가져 온 이론적 실천적 한계를 뛰어넘고 남성 중심으로 고착되어 있는 가부장적 사회 질서에 효율적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기술의 영역에서 소외되었던 여성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술의 영역에 뛰어 들어가 여성의 예측을 무너뜨리고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에 대항하고자 한 획기적인 시도로 여겨진다.

3. 사이보그 페미니즘에서의 사이보그의 특성과 의미

1) 기계와의 적극적 결합

사이보그는 유기체와 기계와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혼성체이다. 인간 신체는 생로병사에 대해 저항할 수 없으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사이보그는 이러한 인간의 약점과 한계를 뛰어넘은 이상적인 능력을 보유한 존재로서 인간이 염원하는 미래의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해러웨이의 사이보그론은 유기체와 기계의 대립으로는 과학기술과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인간의 신체가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테크놀로지에 의해 개선할 수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전제하에 유기체와 기계 사이의 경계를 없애

고 자연과 문화의 경계도 재구성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기술문화의 전적인 선택이나 전적인 거부가 아니라 양자의 관점을 동시에 이해하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보그 페미니즘에서는 기계성과의 적극적인 제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미래에 살아남을 포스트 휴먼은 인간보다 기능적으로 우월하고 자기복제가 가능한 새로운 종이라는(이인식, 2002) 인식하에서 기계와 유기체의 잡종인 사이보그야말로 생명과 기계,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없어져 버리는 미래 우리들의 모습으로 보았다.

2) 부적절한 타자로서의 괴물성

사이보그는 부적절하고 불안정한 존재의 비유로 사용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괴물과의 동질성을 갖는다. 괴물은 ‘무섭고도 경이로운 또는 혐오와 숭배의 대상’이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시작되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간과 동물이 합쳐진 괴물 여성과 마찬가지로 사이보그는 전통적인 인간 개념을 벗어난 이질적이고 괴물적인 존재이다. 이질적인 몸은 상징적 질서 체계를 벗어나는 비정상적인 신체를 의미한다. 객관적이고 규범화된 남성적 시선을 혼란스럽게 하는 여성 신체, 신체를 변형하거나 확대, 훼손하여 신체의 정상성을 공격하는 이미지, 인공물을 부착하거나 이식 수술 등으로 확장된 신체-기계 이미지 등이 여기에 속한다(배명지, 2009). 여성을 괴물과 연결시킨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로 인체의 이상적 모델을 남성의 몸으로 상정한 그는 인간의 출생과정이 정상적인 규범에 의해 진행된다면 남아, 잘못되는 경우 여아가 태어난다고 하여 여성을 비정상적인 것 타자로 규정하였다(김지현, 2003). 따라서 부족한 인간으로서 여성의 몸은 비정상적 기호이자 열등성의 함의를 띠게 되었고 괴물의 영역에 자리해왔다.

비인간과 인간의 경계를 비유할 때 자주 괴물을 올려놓는 것은 이것이 공포감과 혐오감을 가장 강렬하게 표현해내기 때문이다. 해러웨이가 경제적 피조물로 꼽고 있는 ‘유인원, 사이보그, 여자’는 단일 혈족의 가부장제 가족관계에서 벗어난 것으로 그런 의미에서 모두 괴물이다. 괴물은 타자를 대표하는 담론의 중심에 있고 사이보그는 바로 괴물의 맥을 잇는 의미작용의 질서를 과학과 기술의 장에서 증명하는 가능성으로 태어났다. 타자라는 것은 거인이나 짐시 혹은 흑인과 같이 문화적인 전통에서 위협적인 존재였다.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여성과 동물 또한 타자화 된 존재로서 유사성이 있다. 해러웨이는 이제 이러한 ‘타자’의 구분이 의미가 없으며 관계성에 기반을 둔 융합을 더 폭넓게 전개하고자한다. 더불어 타자와의 차이를 인정하고 인식론적으로나 존재론적으로 우리 모두가 관계에 근거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다양한 종의 공존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며 인간과 기계, 동물의 혼성 개념으로 확장된다.

3) 탈 경계의 매개체

『사이보그 선언문』에서 사이보그는 탈 경계의 기호로서 사용된다. 즉 사이보그는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붕괴할 뿐 아니라 유기체와 기계,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의 경계 붕괴를 가져오는 기호이다. 해러웨이의 선언문에서는 ‘경계성의 긴장’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양립할 수 없는 사물들이 둘 다 혹은 전부 필요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이 사물들을 함께 주장하는 긴장에 관한 것”이라 하며 사이보그는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매개체로 그 경계의 긴장에서 수많은 의미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질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지던 두 개체를 섞어놓음으로써 오히려 경계를 부각시키고 있다. 사이보그는 또한 탈 성차의 세계에서 만들어진 산물이다. 사이보그화한 인간들은 외양상 여성, 남성으로 구별할 수 있지만 기능상의 측면에서 성차가 존재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외모나 성별, 나이를 바꿀 수 있는 유연한 존재들이다. 또한 무생물인 기계적 인공물의 병치를 통해 성적인 것을 억제하고 무성의 성적 표현을 한다(스프링거, 1996/1998).

이처럼 사이보그는 기존의 이분법적 경계, 즉 유기체와 무기체, 남성과 여성, 자아와 타자, 자연과 문화, 삶과 죽음, 권력과 피지배 등과 같은 수많은 이항대립의 경계를 넘나들며 모든 이분법적 인식론의 경계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한다. 또한 사이보그는 새로운 전복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혼종적인 존재로 지금까지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왔던 모든 구분과 경계들을 무너뜨림으로써 지배적인 남성 권위와 이에 따른 신념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변화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김소영, 2006).

4) 새로운 존재로의 변이와 진화

인공두뇌학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사이보그는 인간과 기계가 결합된 형태로 재조직화 된 신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전자심장박동 제어장

치를 장착한 사람, 의족, 보청기, 인공관절, 인공장기를 부착한 사람들은 기술적인 의미에서 사이보그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이보그 스테판 호킹(Stephen Hawking)은 손가락으로 조이스틱을 움직여 메뉴판에서 단어를 선택하면 소프트웨어가 소리들을 검색하고 단어를 이어 문장을 만든 후 이음발성기가 함께 작동하여 전자적인 소리를 만들어낸다. 사이보그인 그에게서 신체는 새로운 전자신체로 재조직화 되었고 전자신체가 지각과 실행의 장소가 된다.

해러웨이는 ‘유기체적인 것과 기계적인 것의 융합, 분리된 유기체적 체계들 간의 결합의 엔지니어링’의 속성을 갖는 사이보그가 가져올 수 있는 해방적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유토피아적 상상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매개체로 보았다(손창희, 2006). 사이보그는 주어진 육체나 관계 내에 머무르지 않고 정체성을 초월하고 새로운 길로 도약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즉 가장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개조하고 가장 심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가장 파격적으로 진화, 변이한 존재이다. 사이보그는 자신을 재구축하려는 몸이며 사회에 의해 재구성되는 몸이다. 따라서 단순한 원형질이나 유기체보다는 인간과 기계가 결합한 새로운 종으로 이해할 수 있다.

IV.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사이보그 페미니즘

사이보그는 문화 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이 시대의 신체 개념이다. 사이보그는 신화 속 상상의 괴물이나 그로테스크 이미지와는 다르며 사이보그의 특성과 의미에서 살펴 본 것처럼 혼성적이고 다중적인 인간 정체성을 표현하는 이미지로 함유하고 있는 기호적 의미가 중요하다.

해러웨이는 사이보그를 통한 여성 해방의 의미를 담고 있는 사이보그 페미니즘을 주창하였는데 본 장에서는 1990년대 이후 컬렉션에서 발표된 패션디자인 중 기존의 개념을 부정하고 파괴한, 실험적 요소가 강한 독창적인 디자인을 사이보그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패션에서의 사이보그 페미니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체계화된 분석의 틀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는 앞에서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페미니즘의 핵심 이론과 사이보그 페미니즘에서의 사이보그의 특성과 의미를 분석 틀로 사용하였다.

1. 기계 이미지

과학기술의 혁명은 인간의 삶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컴퓨터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새로운 문화인 사이버문화를 창조하였다. 사이버문화가 가능하게 한 가상현실은 자연법칙에 순응하던 인간 신체를 초월하여 가상신체를 만들어낸다. 가상신체는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모호한 사이보그 이미지로 새로운 문화적 기대를 창출하고 있다(이민선,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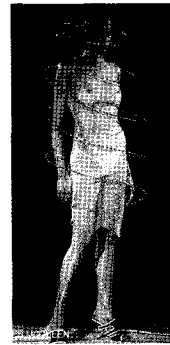
패션에서도 기계 이미지를 통해 과학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가상신체 이미지의 존재를 제시하고 있는데 패션에서 보여 지는 기계 이미지는 기계적 부품과 결합된 이미지를 표현하거나 기계적 조작을 통해 변형이 가능한 복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알렉산더 맥퀸은 1999-2000 F/W 지방시 컬렉션에서 <그림 1>과 같은 발광성의 컴퓨터 회로가 프린트된 바다 수트를 입고 있는 안드로이드 모습의 모델을 등장시켰는데 사이보그의 인간화를 보여주는 것 같은 이러한 스타일은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기계의 힘을 빌려 재 조직화된 신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Lee, 2005). 이러한 기계 이미지의 이질적 신체는 남녀의 성을 초월한 새로운 몸으로 기술에 의한 신체의 연장을 보여주고 있다. 즉, 여성의 신체를 하고 있지만 기계와의 결합을 통한 강력한 파워로 기존의 여성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있는 것이다. 1999-2000 F/W 지방시 컬렉션에서는 또한 <그림 2>와 같이 반도체 칩과 복잡한 회로, 불 켜진 전구로 장식된 의복을 입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인간의 한계와 능력을 초월한 초능력적인 인간신체 이미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전원을 차단했을 때 순간적으로 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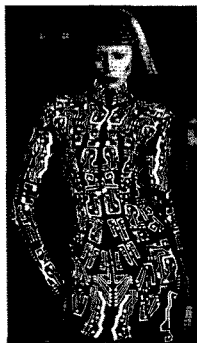
져 버리는 가상신체를 통해 미래의 디지털형 인간을 보여주고 있다.

복식에 기계 이미지를 부가한 디자인 이외에도 후세인 살라얀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1999-2000 F/W에는 <그림 3>과 같이 리모컨으로 조절되는 비행체(Aeroplane) 드레스를 발표하였는데 살라얀은 옷의 각 부분이 비행기 날개 각 부분처럼 움직이는 효과를 원한다고 하였으며 테크놀로지가 인체와 그 기능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하였다(Koda, 2001). 또한 2007 S/S에는 얇고 비치는 로맨틱한 드레스에 모터를 내장하여 실루엣을 극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게 만든 <그림 4>와 같은 기계적 드레스(mechanical dress)를 발표하였다(Davies, 2010).

이러한 디자인은 인공보철을 사용하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의복의 고유한 구조에 기계를 첨가하여 테크놀로지와의 새로운 융합과 공생 속에서 의복을 통한 인간 능력의 확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기계와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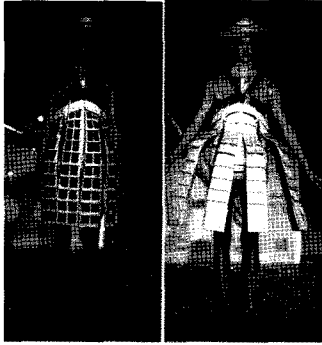
<그림 2> Givenchy, 1999-2000 F/W
자료출처: Collezioni donna, N.68. p. 40.



<그림 1> Givenchy, 1999-2000 F/W
자료출처: Lee. (2005). p. 52.



<그림 3> Hussein Chalayan, 2000 S/S
자료출처: Koda. (2001). p. 134.



<그림 4> Hussein Chalayan, 2007 S/S
자료출처: Davies. (2010). p. 111.

합된 이미지를 표현한 패션디자이너는 인간과 기계의 경계를 초월한 탈경계성을 보여주며 테크놀로지의 발달이 가져다 준 가상공간에서의 인간의 존재 형태를 예시함으로써 과학기술이 미래의 신체를 재구성하는데 핵심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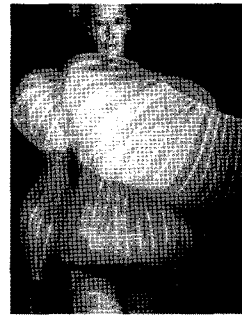
2. 신체의 왜곡된 변형

과학기술과 의학의 발전으로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신체의 변형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 성형을 통한 완벽한 미의 쟁취가 가능하고 성전환을 통한 성별 변이 또한 가능해졌으며(추중완, 2004) 장기의 교환, 인공심장, 인공혈관, 유전자 조작은 신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이것은 신체가 변형 왜곡 창조가 가능한 대상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과학기술과 몸에 전통적으로 존재했던 경계를 무너뜨리고 몸의 불확실성을 심화시켰다.

레이 가와쿠보는 1997 S/S 컬렉션에서 노틀담의 곱추 좌지모토를 연상시키는 심하게 왜곡된 신체의 형태를 보여주는 패딩된 드레스를 발표하였는데 <그림 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깨와 가슴 또는 엉덩이 부분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울퉁불퉁하게 표현함으로써 여성 신체를 변형 왜곡하고 있다. 즉 비틀려있고 기괴한 신체 특성을 부과하여 몸이 일그러져 보이게 함으로써 괴물 같은 여성의 신체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아카디우스는 새장과 같은 장치로 신체와 의복 사이의 등극계 공간을 만들어 <그림 6>과 같이 제멋대로 부풀어 오른 신체의 형태를 표현하였다. 신체라는 제한된 공간을 초월하여 주변의 3차원



<그림 5> Rei Kawakubo, 1997 S/S
자료출처: Visions of the body. (2005). p.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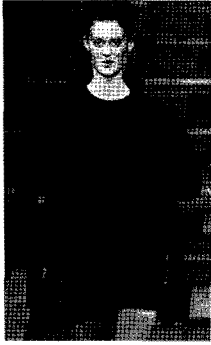


<그림 6> Arkadius, 2002 S/S
자료출처: Modain Collezioni, N.124. p. 180.

적 공간을 모두 표현대상으로 생각하는 초공간성을 추구하고 있는 이러한 의복은 상상력에 의해 다양하게 해석되는 몸으로 몸의 경계에 대한 개념을 무시하고 확장되어 복식과 몸은 디자이너의 조형의지를 담은 의식 확장의 장으로 표현되고 있다(임은혁, 2006). 또한 이세이 미야케는 <그림 7>처럼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신체의 형태를 표현하였는데 여성의 상징인 가슴의 형태를 모호하게 하여 전통적인 미적 개념을 거부하고 무성의 성적 표현을 시도하고 있다.

존 갈리아노가 2002 F/W 디오르 컬렉션에서 발표한 <그림 8>의 디자인은 입심복부가 돌출된 것 같은 형상의 금속적인 신체 방패스타일로 인공수정 은 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김현수, 양숙희, 2004). 이러한 표현은 보편적이지 않은 여성 이미지를 통해 새로운 개념의 신체 형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서 신체는 끊임없이 수정, 개조, 설정되는 기계로서의 몸으로 제시되고 있다.

신체 변형을 통해 정형화되지 않은 신체를 기형적으로 표현하는 디자인에서는 복식과 몸의 경계는 희미



<그림 7> Issey Miyake, 2000 S/S
자료출처: Koda. (2000). p. 95.



<그림 8> John Galiano, 2002-03 F/W
자료출처: Book Moda, N.62. p. 171.

해지고 몸에 대한 의식적 한계의 확장을 통해 신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의 증가를 보여준다. 또한 전통적 담론에 의한 이상적인 인체의 형태에 대한 개념을 해체하고 있으며 몸 양식의 기호에 대한 탈피로 여성성의 탈고정화와 억압으로부터의 여성 해방을 유도한다(이신영, 김혜영, 2003). 또한 이처럼 이질적으로 변형된 신체는 정상적인 신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정상 비정상의 모호한 경계를 넘어서 신체와 인간을 새롭게 인식하게 한다.

해러웨이의 말처럼 사이보그는 어떤 변형의 가능성도 구성하는 상상력과 물질적 실재의 응축된 이미지이다. 변형된 신체의 구현은 일종의 사이보그가 됨을 의미하며 자신의 신체를 벗어나 비유기적이고 인공적인 신체로 새롭게 재창조된다는 의미이다.

3. 부분적 해체와 재조합

사이버문화에서 인간의 신체 개념은 총체적 개념에

서 벗어나 더욱 더 부분화되고 파편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신체는 매매와 교환적 가치를 지니며 기능과 의미가 완전히 변화되어 재조합과 변형 가능한 기계적 관점에서 읽히게 된다. 신체는 더 이상 고유한 실체가 아닌 분리합성 가능한 일종의 기계 부품처럼 취급되는데 이러한 신체에 대한 인식전환은 신체 위에서 조형화되는 패션디자인에 대한 개념마저 변화시키고 있다(권기영, 조필교, 2000).

2003 F/W 컬렉션에서 후세인 살라얀은 <그림 9>과 같이 구멍을 내고 찢은 듯한 해체부위에 새로운 소재를 채워 넣어 재조합하였고, 2008-09 F/W 컬렉션에서 개타노 나바라는 여성의 가슴부분의 형을 떼서 원래 존재하는 위치에 다시 조합하고 있다(그림 10). 이것은 신체의 일부분을 파편적으로 분리하고 재조합함으로써 인체를 하나의 기계처럼 분리합성 가능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장 폴 고티에는 2002 S/S 컬렉션에서 의복의 디테일을 해체하여 <그림 11>에서처럼 각 부분을 비규범적 위치에 재구성하여 비구축적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10 S/S 레이 카와구보의 의상들에서는 <그림 12>에서처럼 어깨의 볼록한 부위들만 따다가 여기저기 배치하여 마치 어깨들이 제자리를 잃은 채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디자인들은 전체를 부분으로 절개하여 형태를 파괴한 후 재결합하여 극단적인 새로움을 창조한 것으로 인간의 신체가 본질적으로 많은 부분으로 구성된 복잡한 기계라는 시각에 의한 것이다. 비논리적이고 우연성이 강조된 이러한 구성은 기본적인 인체와 복식의 관계를 무시한 기괴한 형상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의복의 각 부위의 본질적 기능을 해체하여 비구조적 비대칭 실루엣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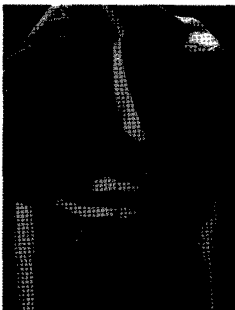
<그림 9> Hussein Chalayan, 2003-04 F/W
자료출처: Book Moda, N.66. p. 102.



<그림 10> Gaetano Navarra, 2008-09 F/W
자료출처: Book Moda, N.96, p. 273.



<그림 11> Jean Paul Gaultier, 2002 S/S
자료출처: Modain Collezioni, N.125 p. 123.



<그림 12> Rei Kawakubo, 2010 S/S
자료출처: Book Moda, N.106, p. 55.

의적 형식으로 인체와 의복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였고 복식의 형태가 가지는 전통적인 의미의 연관성을 의도적으로 해체하고 재조립함으로써 전통적인 복식에서의 기표와 기의의 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임은혁, 2007).

사이보그가 새로운 인간화(humanization) 과정을 통해서 자기교배(창조)에 의한 돌연변이 인간을 만들어

낸 것처럼 신체를 분해하고 다시 짜 맞추는 작업은 적극적인 타자화를 통해 탈정체성을 표현하며 다시 대상으로 보여진 완성된 신체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 또는 정체성의 초월적 의미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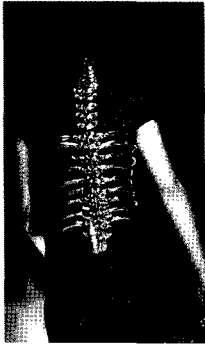
Deleuze and Gattari(1974/1983)는 신체를 분절된 부분들의 무질서한 조합으로 파악하였고 ‘기관 없는 신체’라고 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기관 없는 신체는 기관화(조직화)되지 않은 신체로 따라서 고정적이지 않고 변형 가능한 초신체로서의 유동성을 표출하는 것이며 파편화된 신체는 자유로이 분리되어 해체되고 탈영토화 되어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된다. 따라서 이러한 파괴와 재구성은 단지 형태를 파괴하는 행동이 아니라 신체의 범주를 확장시키는 것이며 실제 신체의 한계를 넘어 인공적인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신체를 창조하는 것이다.

4. 신체 해부학적 표현

생명공학과 유전자 연구의 성과인 자기공명이나 초음파 등은 고전적인 엑스레이가 꿈도 꾸지 못했던 신체 내부 이미지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특히 게놈 연구에 의해 인간의 신비가 벗겨지고 해체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또한 인체 단층촬영은 신체 조직 내부를 투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인간 신체의 해부학적 지식에 대한 비약적인 발전은 인간 신체 표현의 한계를 확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권기영, 조현주, 2002) 패션디자인에도 신체 피부와 내부 구조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반영하는 작품이 등장하였다.

알렉산더 맥퀸은 1998 S/S 컬렉션에서 보석디자인인 션 리안(Shaun Leane)과 공동 작업으로 인체해부학에 근거하여 <그림 13>과 같이 실제 갈비뼈를 알루미늄으로 본 떠 만든 Ribcage corset을 선보였다(Evans, 2003). 그 외에도 근육을 패션모티브로 하여 디자인하거나, <그림 14>에서처럼 혈관의 형태를 마치 인체를 투사하여 본 것처럼 표현한 작품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형상들은 상징적 질서체계를 벗어나 내부가 외부로 드러난 일반적으로 수용되지 않은 신체로서 전통적 인간 개념을 벗어난 이질적이고 괴물적인 존재로서 표현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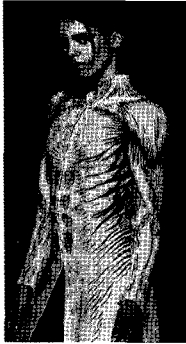
사이버공간에서는 거리의 증발로 인해 어디든 이동이 가능하며 순간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탈 영토화가 일어난다. 내부는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외부로 통하여 경계를 초월하여 내부에서 외부로, 외부에서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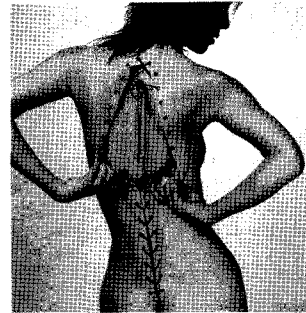
<그림 13> Alexander McQueen, 1998 S/S
자료출처: Evans. (2003). p.224.



<그림 15> Txell Miras, 2006-07 F/W
자료출처: Book Moda, N.85. p.43.



<그림 14> Gattinoni, 2002-03 F/W
자료출처: Book Moda, N.62. p. 477.



<그림 16> Nicole Tran Ba Vang, 2001 S/S
자료출처: 메르디외. (2003/2005). p.199.

부로 통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작품들은 인간의 신체 개념의 확장은 더 이상 인간 신체의 외피 표면에 제한되지 않고 신체의 골격과 근육 등 신체의 내부 조직을 밖으로 끌어내어 전혀 다른 차원의 경험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것은 사이보그가 현실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공장치들과 같이 인간의 신체 내부에 깊숙이 들어와 자연적인 기관들과 상호작용하는 실체 있는 기계를 필요로 한다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림 15>에서는 신체 내부를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을 복식의 외부로 드러내어 신체와 복식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내부와 외부의 공간을 같이 배치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니콜 트란 바 방은 <그림 16>의 2001 S/S 작품에서 모델들이 피부와 흉터를 속옷을 걸치거나 벗어버리듯이 다루는 모습을 보여준다. 모델의 벗겨벗은 몸은 끈으로 여미거나 풀어 해칠 수 있는 제2의 피부를 지니고 있는데 모델의 이미지는 디지털로 제작되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 실제처럼 보인다(메르디외, 2003/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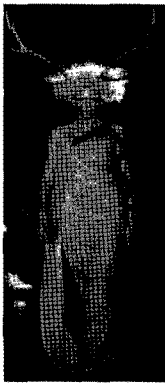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디지털 신체의 개념은 단순히 인간을 기계주의적인 사이보그로 연장하여 인간의 신체를 대체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이라는 존재론적인 정체성을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해 구현되는 가상신체는 초신체로서 초월적 피부(hyper cortex)와 결합하며 신체는 그 자신으로부터 탈출하여 새로운 속도를 얻고 새로운 공간을 획득하는 것이다.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만들어내는 비물질적인 시공간, 혹은 개념 안에서 인간은 가상의 정체성을 가진 가상신체로 변환되어 가상과 실체를 넘나드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5. 이질적 이미지의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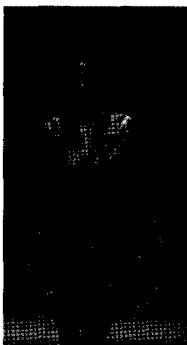
디지털 환경에서의 신체 이미지는 인간의 신체 개념을 벗어나 무한한 잠재성을 가지며 실재하는 것을 넘

어서 가상의 이미지들을 실재화 시킨다. 탈 영토화가 일어나는 가상공간에서는 하나의 지점이 하나의 존재자에 의해 점유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지점이 하나의 존재자에 의해 점유될 수도 있고 하나의 지점이 무수한 존재자에 의해 점유될 수도 있다. 즉 가상공간은 끊임없이 다른 것에 침투당하는 쉬임의 공간이며 혼성 잡종과 변이가 일상화되는 공간이다(이종관, 2003).

<그림 17>에서 빅터 앤드 로프의 사슴의 뿔의 형태를 머리에 붙인 헤어스타일이나 알렉산더 맥퀸의 동물의 귀를 연상시키는 헤어스타일 <그림 18> 등은 이질적 이미지의 불안정한 결합으로 기괴하면서 독특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이것은 매튜 바니가 그의 작품에서 계속해서 드러내는 잡종, 괴수처럼 ‘모두 뒤엎겨 혼재하는’ 포스트 휴먼적 특성을 보여준다. 사이보그처럼 인간과 비인간의 혼종으로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에 있으면서 경계를 어지럽히는 존재로 경계를 해



<그림 17> Victor & Rolf, 2004-05 F/W.
자료출처: Gap Press, Vol. 58 p. 18.



<그림 18> Alexander McQueen, 2010 S/S.
자료출처: Book Moda, N.106 p. 32.

체하고 교란하는 존재인 것이다.

신체를 어떤 사물이나 동물의 이미지와 결합하여 표현하는 것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인간 무의식의 상상의 세계 속에서만 가능한 형상을 창출하며 기존의 신체 외형을 부정하고 새롭게 재구성한 변종이 된다. 이러한 변신은 기존의 모든 형태를 와해하고 도식화된 사고를 부인하며 신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틀을 제시함과 동시에 인간의 정체성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이러한 반인반수 이미지는 자아/타자의 불확실한 경계로서 분열된 정체성을 보여준다.

이질적인 요소들과 혼용, 융합하여 만들어진 이질적 신체는 인간과 동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둘 사이의 구분을 없애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구조적 형상이지만 그렇게 이루어진 형상은 그 자체로 새로운 하나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돌연변이 신체는 진화의 방향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창조적 생성이며 이러한 창조적 생성은 인간이 자신을 하나의 정체성에 한정시키지 않는 모든 것이 가능한 원초적 신체로서 타자라는 인식론적 경계를 허물고 다른 것과의 접촉을 통해 자신의 존재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다.

6. 페르소나 이미지

디지털 기술에 의한 가상공간에서 인간의 정체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컴퓨터 통신을 매개로 하는 가상공간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거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다. 흔히 ID라고 불리는 가명 또는 아바타를 사용하여 나 아닌 나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데 이에 대해 봄베르그(Bomberg)는 정체성 유희(identity play)라고 하였다(이재현,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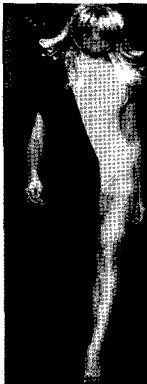
2002 F/W 지방시 컬렉션에서 장 폴 고티에는 <그림 19>와 같이 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신비의 여성을 등장시켰는데 검은색 망토 안에 숨겨진 화려한 드레스처럼 부드러운 은 마스크 안에 감춰진 강한 남성성 같은 미스터리한 정체성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2004-05 F/W 컬렉션에서는 <그림 20>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마리오네트와 실제 모델과의 콤비네이션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사인간인 인형의 존재는 인간과 무생물의 혼성물로서 여기에서 인형은 인간의 이상적 신체를 형상화한다기보다 이질적이고 비정상적인 존재로 등장한다. 나와의 흡사함을 통해 나를 타자화 시키며 타자와의 경계를 붕괴시키고 인간성과 비인간성 사이의



<그림 19> Givenchy, 2002-03 F/W.
자료출처: Book Moda, N. 62. p. 193.



<그림 20> Jean Paul Gaultier, 2004-05 F/W.
자료출처: Gap Press, Vol. 58. p. 70.



<그림 21> Martin Margiela, 2009-10 F/W.
자료출처: Book Moda, N.104. p. 196.

혼성 교배를 통한 타자와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마틴 마르지엘라가 2009-10 F/W 컬렉션에서 보여준 <그림 21>과 같은 마스크를 쓴 모델에서는 하나의 신체에 의복의 안과 밖, 여성과 남성 이미지가 공

존하고 있는 비논리적이고 모호한 정체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환상적 가면으로 표현된 패션에서 가면 뒤에 숨겨진 얼굴 모습은 인간의 정체성까지 모호하게 한다.

페르소나는 외관의 리얼리티보다 유기적 신체를 가장하며 자기변신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익명성을 보장하는 이러한 가면은 기존 질서에서 일시적인 해방을 맛볼 수 있게 해주며 또한 이것은 자신의 자아를 가리기보다는 오히려 강화하고 드러내면서 가장을 통해 잠재적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오늘날 디지털 문화가 형성한 인간 존재론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인간은 더 이상 고정된 본질이라기보다는 다중적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서 스스로 자연적 신체를 재구성하고자 하며 상상의 외모, 지위, 라이프스타일을 수시로 바꿔 가며 다양하게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사이보그 페미니즘 시각을 사이보그의 특성과 의미를 통해 분석한 연구의 결과는 <표 1>에 정리하였다.

V. 결 론

21세기 여성의 삶에서 과학기술영역의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과학기술과 정보화 시대의 페미니즘으로 해러웨이의 사이보그론은 가장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해러웨이의 사이보그론은 새로운 페미니즘 저항체의 형상화된 이미지로 정체성 재구성의 원천이자 서구 이원론을 극복하는 힘으로 주장되었다. 이러한 사이보그론은 기계와의 결합을 적극적으로 지향하고 타자로서의 괴물성과 이질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탈경계의 매개체로서 기능하고 새로운 존재로의 변이를 표상하고 있다.

패션에서도 과학기술 시대의 변화된 신체와 복식의 개념을 제시하는 디자인들이 등장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디자인의 특성과 미적 가치를 사이보그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분석하였다(표 1).

패션디자인에 표현된 기계 이미지, 왜곡된 신체 변형, 부분적 해체와 재조합, 신체의 해부학적 표현, 이질적 이미지의 결합, 페르소나 이미지 등의 파격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은 기계적인 조작이나 변형, 분리 합성 가능한 실체 있는 기계와의 혼성 결합을 통한 인간의 신체적 한계의 확장과 사이보그와 같은 불안정한 타자로서의 괴물성과 이질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

〈표 1〉 사이보그 페미니즘 시각으로 분석한 패션디자인

패션의 특성	기계 이미지	왜곡된 변형	부분적 해체와 재조합	해부학적 표현	이질적 결합	페르소나 이미지
기계와의 결합	· 기계 부품 기계적 조작	· 기계로서의 신체	· 분리합성 가능 한 기계 부품	· 실제 있는 기계적 신체	-	-
타자로서의 괴물성	· 이질적 신체	· 기형적 신체	· 기괴한 형상	· 이질적이고 괴물적인 존재	· 혼성 잡종	· 불안정한 타자성
탈 경계의 매개	· 인체와 기계와 의 탈 경계	· 인체와 의복의 탈 경계 · 정상 비정상 의 경계 해체	· 인체와 의복의 탈 경계 · 탈 영토화	· 인체와 의복의 탈 경계 · 내부 외부의 탈 경계	· 인간 비인간의 탈 경계 · 탈성	· 타자와의 경계 해체 · 탈성
새로운 존재로의 변이	· 과학과 융합된 새로운 존재	· 인공적인 새로운 신체	· 새로운 방식으 로 재구성 된 신체	· 가상과 실재를 넘나드는 새로 운 존재	· 새롭게 재구성 한 변종	· 다중적 정체성 의 새로운 존재

한 인체와 기계, 남성과 여성, 신체와 의복, 내부와 외부, 정상과 비정상, 자아와 타자의 경계를 넘나드는 초월적인 존재를 제시하고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창조된 존재로서 사이보그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고도 테크놀로지 환경에서의 신체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인간의 신체 개념을 벗어난 무한한 잠재성과 기술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불화적정 신체로 의복을 통한 인간 능력의 확장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비관습적이고 반 미학적인 디자인은 이상적인 미적 개념의 기준을 거부하고 미적인 인체의 파괴를 통한 자유로운 유희를 통해 여성성의 탈고정화와 억압으로부터의 여성해방을 유도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것은 기술과학 시대의 새로운 여성의 정체성과 여성 해방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사이보그 페미니즘 관점에 의한 시각적 표상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패션디자인에서의 신체와 복식 표현의 의미 분석을 사이보그 페미니즘에 근거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여 더욱 광범위한 사회적 현상과의 관련성을 배제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분석의 시각과 방법론 역시 다원화될 수밖에 없으며 본 연구에서는 테크놀로지 사회에서의 기계-여성상의 전형으로서의 사이보그에 보다 집중하여 분석하였다.

이제 사이보그는 미래 공상 과학적 취향의 문제나 실험적 과학만의 담론이 아닌 오늘날 디지털미디어의 혁명적 전환기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현실적 문제이며 문화의 일부로 코드화되어 설명되고 이해되고 있다.

패션은 신체를 감싸는 조형이고 표면으로 덮여있어도 하지만 신체를 새로운 방법으로 말해주는 도구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현대 패션디자인에서는 아름다운 몸으로서의 여성 신체 양식을 재생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몸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 각도에서 실험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고도 테크놀로지 환경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패션개념을 인식하고 현대 패션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동시대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코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기영, 조필교. (2000). 현대 패션디자인에 표현된 신체 이미지의 상징성. *복식문화연구*, 8(5), 681-706.
- 권기영, 조현주. (2002). 현대 예술에 나타난 신체의 표현과 복식의 조형성. *대한가정학회지*, 40(6), 1-19.
- 김소영. (2006). *사이보그를 통한 여성 해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윤상. (1999). *정보사회의 '탈 육체' 경향과 물리적 고통의 문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은희. (2002). *복식에 표현된 몸 이미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지현. (2003). *여성의 몸-그 파편화된 이미지에 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수, 양숙희. (2004). 디지털 시대 패션에 나타난 사이버 페미니즘 연구(제2보). *한국의류학회지*, 28(2), 200-211.
- 메르디외, 플로랑스. (2003). *예술과 뉴테크놀로지*. 정재근 옮김 (2005). 서울: 열화당.
- 배명지. (2009). *Artist's body*. 서울: 코리아나 미술관.
- 손창희. (2006). *사이보그 페미니즘 시각으로 분석한 사이보*

- 그 캐릭터 연구. 세종대학교 영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희영. (2007). 인조인간, 사이보그 그리고 다시 인간으로. *독일어문학*, 36, 335-355.
- 스프링거, 클라우디아. (1996). *사이버 에로스: 탈 산업 시대의 육체와 욕망*. 정준영 옮김 (1998). 서울: 한나래.
- 심혜경. (2004). *사이보그 영화로 고찰하는 사이보그 여성 주체*.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민선. (2001). 패션에 표현된 가상성. *한국의류학회지*, 25(5), 981-990.
- 이신영, 김혜영. (2003). 포스트모던 페미니즘과 몸 양식의 탈 고정적 표현에 관한 연구. *복식*, 53(1), 49-66.
- 이인식. (2002). *21세기 키워드*. 서울: 김영사.
- 이재현. (2000). *인터넷과 사이버 사회*.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 이종관. (2003). *사이버 문화와 예술의 유희*. 서울: 문예출판사.
- 임은혁. (2006). *복식에 표현된 몸의 재현성과 비재현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임은혁. (2007). 현대 패션에 표현된 몸의 과편화. *복식*, 57(6), 145-159.
- 장정희. (2009). 과학기술 시대의 페미니즘과 사이보그론. *영미문화페미니즘학회지*, 17(1), 269-295.
- 전지현. (2008).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디지털 이미지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추종완. (2004). *신체 이미지로 표현된 인간 존재의 표상*.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Visions of the body 2005*. (2005). 서울: 서울시립미술관.
- Davies, H. (2010). *British fashion designers*. Tokyo: P-vine books.
- Deleuze, G., & Guattari, F. (1983). *Anti-oedip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R. Hurley, M. Seem, & H. R. Lane, Trans.). Minneapolis and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74)
- Evans, C. (2003). *Fashion at the edge*. New He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Haraway, D. (1991). *Simons, cyborg and women: The reinvention of nature*. N.Y.: Routledge.
- Haraway, D. (1994). A manifesto for cyborgs: Science, technology, and socialist feminism in the 1980s. In S. Seidman (Ed.), *The postmodern turn* (pp. 85-89).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yles, N. K. (1993). *How we become posthuman: Virtual bodies in cybernetics, literature and informatics*. Chicago: Chicago UP.
- Koda, H. (2001). *Extreme beauty: The body transformed*. NY: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 Lee, S. (2005). *Fashioning the future*. London: Thames and Hudson.
- Toffoletti, K. (2007). *Cyborg and Barbie dolls: Feminism, popular culture and the posthuman body*. London: I.B. Tauris.